

# 조선 태조비 神懿王后 齊陵 연구\*

장 경 희\*\*

- I. 머리말
- II. 신의왕후의 추숭과 제릉의 조성
- III. 후대 국왕들의 제릉 참배와 수묘실태
- IV. 제릉 석물의 종별과 양식적 특성
- V. 맺음말

## I. 머리말

조선 후기 왕릉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필자가 주목한 것은 개개의 왕릉이 각기 다른 制樣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었고 시기에 따라 선대 왕릉 중 하나를 典範으로 삼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전범으로 삼은 왕릉을 찾아 먼저 연구한다면 그것을 모방한 왕릉들의 양식을 이해하기가 용이하겠다고 판단하였다. 곧 17세기에는 세조의 광릉을, 18세기에는 정종의 후릉을 전범을 삼고 있었다.<sup>1</sup> 그렇다면 후릉의 전범은 어느 왕릉이었을까에 관한 의문을 갖게

\* 이 논문은 2008년도 한서대학교 교내 학술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서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교수

<sup>1</sup> 장경희, 「조선 후기 山陵都監의 匠人연구 -왕릉 정자각과 석의물의 제작과정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제25호 (역사민속학회, 2007.11), pp. 119-198.

되었다. 이것이 본고에서 제릉을 연구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그런데 조선시대 왕릉 중 최초로 조성된 것은 1397년(태조 6) 1월 한양의 취현방[현 중구 정동] 북쪽 언덕에 완공된 태조의 繼妃 神德王后的 貞陵이었다.<sup>2</sup> 그러나 정릉은 태조가 승하한 이듬해(1409년) 태종에 의해 도성 밖 사을한산[현 성북구 정릉동]으로 옮겨지면서 대부분의 건물이나 석물이 흩어지고 생략되어 왕릉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였다가,<sup>3</sup> 1669년(현종 10) 1월 대대적인 중수를 거쳤기 때문에 현재 조선 초기의 원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sup>4</sup> 반면 태조의 원비 神懿王后的 齊陵은 1408년(태종 8) 1월에 왕후릉으로 조성되었고, 그 해 승하하여 9월에 완성된 태조 건원릉을 조성하는 데에도 선례가 되었다.

이처럼 제릉은 현존하는 조선왕릉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조성되었지만 북한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2대 정종과 정안왕후의 厚陵과 함께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더욱이 정종과 정안왕후의 후릉은 제1대 태조에 이은 제2대에 해당되지만 쌍릉의 형태나 배치가 고려 말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의 현·정릉과 유사한 데다가 숙종 대부터 조선 후기 왕릉을 조성하는 데 전례로 삼아 간혹 소개된 적이 있었다.<sup>5</sup> 그러나 신의왕후의 제릉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고려 말 조선 초기 왕릉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면서 처음 소개되었을 뿐이다(도1).<sup>6</sup>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선 초기 왕릉의 가장 이른 예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릉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하였던 신의왕후의 제릉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조선 시대의 왕릉을 연구하려면 최초의 전범이 된 제릉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였다. 따라서 제릉의 조성과정, 후대 국왕들의 친행과 관리실태 등을 살펴 원형이

2 『태조실록』 권1, 태조 6년 1월 3일 병진.

3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2월 23일 병신.

4 『현종실록』 권16, 현종 10년 1월 4일 무술; 1월 5일 기해; 1월 20일 갑인; 『현종개수실록』 권20, 현종 10년 1월 4일 무술; 『현종개수실록』 권20, 현종 10년 1월 5일 기해.

5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편, 『조선유적유물도감』 14(외국문종합출판사, 1993);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조선시대』(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로 재출간. 이정선, 「조선전기 왕릉 石人石獸 연구」(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p. 65; 『기보고 싶은 왕릉과 그 기록 : 풀어쓴 후릉개수도감의례』(문화재연구소, 2008).

6 제릉은 그동안 문헌기록만으로 간략히 소개되었을 뿐이었다(은광준, 『高麗·朝鮮陵誌』(문성당, 1988), pp. 152-158; 『문화유산 왕릉』(한국문원, 1995), pp. 31-33; 한성희, 『여기자가 파헤친 조선왕릉의 비밀 1』(솔지미디어, 2006), pp. 72-76). 그러다가 2009년 처음으로 제릉을 포함한 고려 말, 조선 초기 왕릉의 실측도면과 현장사진을 포함한 종합보고서가 발간되었으므로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조선왕릉 종합학술보고서 1』(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pp. 142-197).



도1 제릉 전경

변모되지나 않았는지도 관심을 기울였지만, 본고에서는 특히 조성 당시 제릉에 세워졌던 석물들의 형태와 양식을 여말선초 왕릉들과 비교하여 제릉이 조선 초기 왕릉의 전범으로 자리 매김한 사실과 그것이 갖는 미술사적 의미도 밝혀 보려 하였다.

## II. 신의왕후의 추승과 제릉의 조성

신의왕후 한씨(1337-1391)는 조선조 제1대 태조 이성계의 원비이다. 이성계는 공민왕이 즉위한 1351년 贈門下府事韓卿의 딸과 혼인하여 6남(方雨, 方果, 方毅, 方幹, 方遠, 方衍) 2녀(慶愼宮主, 慶善宮主)를 두었다.<sup>7</sup> 한편 이성계는 1362년(공민왕 11) 흥건적으로부터

<sup>7</sup> 『태조실록』 권4, 태조2년9월18일 경신. 東北面 咸州에 세운 桓王之 定陵碑.

개경을 탈환하는 데 큰 공을 세우고 姜允成의 딸과 혼인하여 2남(方蕃, 方碩) 1녀(慶順宮主)를 두었다.<sup>8</sup> <龍飛御天歌>에 의하면 신의왕후는 태조의 고향인 永興에서 결혼하고 포천의 淳巒洞 농장에 있었으며, 신덕왕후 강씨(?-1396)는 개경 崇教里에서 맞이하여 포천 鐵峴의 농장에 거처하였다고 한다.<sup>9</sup> 이처럼 이성계는 청주 한씨 집안과의 혼사를 토대로 동북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었으며, 대표적 친원과 권문세족의 하나였던 신천 강씨와 통혼하여 고려의 중앙 정계에 뿌리내리고 조선을 건국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sup>10</sup> 비록 이성계가 당대의 명장이었지만 권력의 핵심에 들어갈 명문거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대의 유력한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어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관리가 서울과 지방에 두 처를 갖는 京外 二妻의 관습이 성행하였으며,<sup>11</sup> 이성계가 영흥에서 혼인한 청주 한씨는 鄉妻로, 개경에서 맞이한 신천 강씨는 京妻로 불리게 되었다.<sup>12</sup>

그런데 원비는 조선이 건국되기 한 해 전인 1391년(공양왕 3) 6월 14일 55세로 죽었고,<sup>13</sup> 해풍군 북쪽 15리 밤나뭇골(栗村) 丑山의 甲坐夷向에 안장되었다.<sup>14</sup> 태조가 즉위한 후 원비에게 ‘節妃’라는 시호를 내리고 묘호는 ‘齊陵’이라고 했다.<sup>15</sup> 그녀의 아들인 정종이 왕위에 오르자 1400년(정종 2)에 신의왕후란 시호를 올렸으며, 창덕궁 내 仁昭殿에 眞容을 안치하고 추송하는 禮典도 갖추었다.<sup>16</sup> 1408년(태종 8) 태조가 죽자 태종은 친모인 신의왕후의 시호를 높여 ‘承仁順聖神德王太后’라 하였다.<sup>17</sup> 王太后라는 시호는 아들이 황제에 즉위하고 올렸던 고려의 유습이었다. 1430년(세종 12)에 세종이 시호 앞에 “太”자를 붙이는 것은 제후국으로서 옛 제도를 상고했으나 그런 예가 없다고 하고, ‘신의왕태후’를 ‘신의왕후’로 강정하여 유교의 예제를 따랐다.<sup>18</sup>

8 윤두수, 『神德王后에 관한 研究』, 『石堂論叢』 제5집(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원, 1989), pp. 289-326.

9 『燃藜室記述』 권1, “初神德王后在抱川(率)巒洞田庄 神德王后在抱川鐵峴田庄(龍飛御天歌).”

10 박천식, 「朝鮮 建國功臣의 研究」(전남대학교대 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85).

11 『태종실록』 권27, 태종 14년 6월 신유. “夫婦 人倫之大綱 前朝之季 禮制紊亂 紀綱凌亂 大小人員 京外兩妻 任然竝者”

12 『燃藜室記述』 권1, “夫神德神德 在太祖禪讓時 爲京外二妻……神德爲京妻”

13 『燃藜室記述』 권1, 태조조 “妃承仁順聖神德王后韓氏……洪武辛未 九月二十三日 昇遐壽五十五”

14 『세종실록』 권48, 지리지, 경기 부평도호부 해풍군.

15 『태조실록』 권4, 태조 2년 9월 18일 경신.

16 『태종실록』 권4, 태종 4년 2월 18일 가축.

17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9월 6일 신해.

18 『세종실록』 권48, 세종 12년 4월 6일 을해. 조선 왕실에서 왕태후라는 호칭을 받은 이는 태조비 신의왕태후와 태종비 원경왕태후였는데, 이후 둘 다 신의왕후와 원경왕후로 고쳐 불렀다.

이와 같이 제릉의 능호는 태조 때 정해졌지만 왕릉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는 것은 태종대부터였다. 첫째, 제릉 앞에 神道碑와 碑閣을 세웠다. 신도비는 1403년(태종 3) 10월 20일에 權近이 비문을 지어 올린 뒤 10월 30일부터 조성하기 시작하였다.<sup>19</sup> 규모가 큰 신도비는 비석돌을 마련하기 어려워 華藏寺의 묵은 비를 손질하여 이듬해 2월 18일에 신도비를 세울 수 있었다.<sup>20</sup> 당시 권근은 글을 짓고, 성석린은 글씨를 쓰고, 김침은 액전을 쓰고, 승려 명호는 돌에 새기고, 이응은 역사를 감독하고, 유한우는 터를 잡고, 조희립은 비각의 역사를 감독한 공으로 상을 받았다.<sup>21</sup> 하지만 비석이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 1410년(태종 10) 비문에 잘못된 글자가 발견되어 성석린이 고쳐 썼고,<sup>22</sup> 비각도 고쳐 세웠다.<sup>23</sup> 제릉에 신도비를 세운 것이 전례가 되어 이후 태조의 건원릉, 태종의 현릉, 세종의 영릉에까지 세워져 조선 초기 왕릉을 특징짓는 하나의 기념비적 조형물로 되었다.

둘째, 제릉의 향사공간으로서 衍慶寺를 齋宮으로 삼고 불교식 追薦齋禮를 행하였다.<sup>24</sup> 연경사는 정종이 즉위하면서 수리하여 법석을 베풀었던 사찰로,<sup>25</sup> 제릉의 재궁으로 정한 뒤부터는 제사를 종묘의 제사와 같게 하였다.<sup>26</sup> 하지만 정종대의 재궁은 협소하여 규모를 갖춘 의절을 거행하기가 어려웠던지, 태종은 1404년(태종 4) 9월 그 동쪽 골짜기에 다시 재궁을 영건토록 하였으며,<sup>27</sup> 1년여의 공사 끝에 1405년(태종 5) 8월 완공하였다.<sup>28</sup> 그런데 제릉을 건립한 1년 뒤(1409년)에 衍慶寺의 중수가 이뤄져,<sup>29</sup> 이듬해(1410) 3월에 완공되었다.<sup>30</sup> 이

<sup>19</sup> 『태종실록』 권6, 태종3년10월20일 갑자.

<sup>20</sup> 실록의 華藏寺는 華藏寺의 오류이다(『태종실록』 권7, 태종4년2월18일 기축. “碑文, 乃權近去年所製也. 磨去華藏寺舊碑而刻之”). 북한 내에는 華藏寺가 여러 곳에 있으며, 제릉에서 멀지 않은 개성 룡흥동의 華藏寺는 정종이 자주 다녔다(『정종실록』 권6, 정종2년10월6일 정유; 『태종실록』 권8, 태종2년1월16일 기해). 이곳에는 指空선사(?-1367)의 석조형 부도만 있고 이와 함께 조성되었을 비석이 없어 이것을 옮겼다고 여겨진다. 『북한문화재해설집 1-석조물-』(국립문화재연구소, 1997), p. 131. 도 2-1 〈화장사 지공선사탑〉; 『조선향토대백과』 2(평화문제연구소, 2005), p. 14.

<sup>21</sup> 『태종실록』 권7, 태종4년3월16일 정사.

<sup>22</sup> 『태종실록』 권9, 태종10년3월16일 임오.

<sup>23</sup> 『태종실록』 권9, 태종10년3월18일 갑신.

<sup>24</sup> 허홍식, 「高麗의 王陵과 寺院과의 關係」, 『고려시대연구 1』(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p. 107; 한기문,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민족사, 1998), p. 218. 齋宮은 원당·원찰·능침사찰과 혼용되며 고려와 조선시대에 왕과 왕실을 위해 祝壽와 명복을 빌었던 사찰이다.

<sup>25</sup> 『정종실록』 권1, 정종1년1월3일 갑술, 2월19일 경신.

<sup>26</sup> 『정종실록』 권1, 정종1년4월1일 신축.

<sup>27</sup> 『태종실록』 권8, 태종4년9월12일 경술.

<sup>28</sup> 『태종실록』 권10, 태종5년8월6일 기사.

<sup>29</sup> 『태종실록』 권8, 태종9년8월9일 무신; 『태종실록』 권18, 태종9년8월12일 신해.

후 연경사는 교종사찰로 분리되고, 밭 400결을 주어 제릉의 능침사찰이 되어 신의왕후의 辰辰과 朔望에 齋를 올리게 되었다.<sup>31</sup>

이처럼 조선 초기 왕릉에는 고려 말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의 능인 현·정릉에 정릉사를 세웠던 전례를 따라 능침사찰을 조성하였던 것이다. 곧 신덕왕후의 정릉에 흥천사를, 제릉에 연경사를, 건원릉에 개경사를, 후릉에 흥교사를, 헌릉에 봉은사를 세웠고, 국상 때 國葬·殯殿·山陵都監과 함께 齋都監을 설치하여 유교식 상제와 불교식 추천의례를 치렀다. 조상숭배와 효의 실천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조성한 능침 사찰은 능침의 수호와 제례를 담당하고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장소가 되었다. 하지만 세종대에 성리학적 이념이 심화되고 유교식 예제가 만들어지면서 일상생활에서도 불교식 의례는 점차 사라져가기 시작하였다.<sup>32</sup>

셋째, 제릉의 능상 석실과 석물을 왕릉에 걸맞도록 조성하였다. 태종은 1407년(태종 7) 10월, 일반백성의 묘와 다름없었던 신의왕후의 제릉을 개수키로 하고, 朴子靑(1357-1423)을 監督總制로 삼아 그 역사를 총괄토록 하였다.<sup>33</sup> 5개월여의 역사 끝에 이듬해 1408년(태종 8) 3월 10일, 드디어 제릉에 난간석을 두르고 석인 등을 배치하는 역사를 끝내었다.<sup>34</sup> 제릉을 완공한 지 2개월 후 1408년 5월 태조가 즉자 박자청은 또다시 조묘도감의 제조로서 건원릉의 조성을 총괄하였으므로,<sup>35</sup> 제릉과 건원릉의 양식적인 친연성을 짐작할 수 있고 이 점은 다음 장에서 상술하겠다.

이처럼 태종은 제릉에 신도비를 세워 친모의 위상을 널리 알렸고, 재궁을 영건하여 향사하였으며, 능상 석물을 개수하는 등 순차적으로 제릉의 규모를 확장시킴으로써 조선 초기 왕릉의 제도를 확립할 수 있었다. 그리고 태종은 태조를 太廟에 들일 때(1410년) 신의왕후만을 祔廟하였고,<sup>36</sup> 이듬해에 태조와 신의왕후의 옥책을 종묘에 올릴 때도 마찬가지였다.<sup>37</sup>

30 『태종실록』 권8, 태종 9년 8월 9일 무신.

31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경기 부평도호부 해동군. 연경사에 노비 100 명을 배속하였고(『태종실록』 권16, 8년 7월 29일 을해), 토지 100결을 하사하였으며(『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6월 9일 경술), 제릉에 배례할때 米豆 10 석씩을 내려 주었다(『태종실록』 권9, 태종 10년 3월 18일 갑신).

32 정경희, 「朝鮮前期禮制・禮學 研究」(서울대학교대 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8.), pp. 116-117.

33 『태종실록』 권4, 태종 7년 10월 8일 무자.

34 『태종실록』 권15, 태종 8년 3월 10일 기미; 『세종실록』 권22, 세종 5년 11월 9일 병술.

35 『태종실록』 권15, 태종 8년 6월 28일 을사. 박자청과 조선 왕릉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임영애, 「開城 恭讓王陵 石人像 研究」, 『강좌미술사』 17(한국미술사연구소, 2001); 이정선, 「조선전기 왕릉 石人石獸 연구」(이화여자대 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참조.

36 『燃藜室記述』 권1, 태조조 “太祖 太宗立國未久 不敢始前代之制 故只祔神龕於太廟乎”; 『태종실록』 권20, 태종 10년 8월 10일 갑진. 신덕왕후는 正嫡이 아니므로 辰辰齋만 드리고 正朝는 피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태종이 신덕왕후를 배제한 채 신의왕후를 추존하고 제릉을 왕릉으로 조성하고 종묘에 부묘하는 일련의 과정은 결국, 자신의 왕위 계승에 관한 정당성과 왕권의 정통성을 확인시키려는 데 있었다.

### III. 후대 국왕들의 제릉 참배와 수보실태

조선시대 국왕들이 능행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임으로서 오랫동안 왕릉이 관리 보존될 수 있었다. 이러한 관행이 자리 잡는 데는 제릉이 그 선례를 남겼다고 하겠다. 다음의 <표 1>은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후대 국왕들의 제릉 참배 사실을 정리한 것이다(표 1).

표 1 국왕의 제릉 친행

	정종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중종	숙종	영조	고종	계
친행	3	15	4	2	1	1	1	1	1	29
상왕	7	2								9

위 표에 의하면 제릉에 대한 국왕의 능행은 신의왕후의 아들로서 등극한 제2대 정종과 제3대 태종 때 가장 많이 시행되었고, 세대가 멀어질수록 줄어들었다. 정종은 국왕으로서 3회의 친행과 상왕으로서 7회의 능행으로 총 10회를 다녀왔고, 태종도 국왕으로서 15회와 상왕으로서 2회로 총 17회여서, 둘 다 1년에 평균 1회씩 능행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태종 때에는 상왕 정종의 7회와 태종의 15회로 총 22회 능행했는데, 이는 당시 수도를 개경으로 천도한 무렵이라 거리가 가까워 제릉의 능행이 빈번했을 것이다.<sup>37</sup> 게다가 태종은 상무정신이 강한 국왕이어서 능행 시 넓은 장소에서 사냥으로 심신을 단련하거나 군사훈련(閱武)을 병행하기도 하였다.<sup>38</sup> 이와 같이 왕릉의 조성고 친행이 갖는 권위의 상징성이 컸기 때문에 태조가 즉위 초에 먼저 4대 조상을 추존하고 함경도에 있던 묘소를 시조왕릉으로 조성하여 왕

<sup>37</sup> 『태종실록』 권21, 태종 11년 6월 2일 신묘.

<sup>38</sup> 장지연, 「麗末鮮初 遷都 논의와 한양 및 개경의 도성 계획」(서울대학교대학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pp. 57-58. 태조는 정도전과 함께 廟禮대로 한양을 건설하였으나, 정종은 개경에 예착을 가져 천도하였고, 태종은 태조 사후 동왕 11년에 한양으로 환도하였다.

<sup>39</sup> 『태종실록』 권8, 태종 4년 9월 12일 경술; 권20, 태종 10년 9월 25일 기축; 권5, 태종 18년 5월 1일 경술.

조 개창의 신성성을 드러내는 데 활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sup>40</sup>

세종대부터 유교적 예제가 강조되면서 능행은 점차 줄어들었지만, 성종 때 『국조오례의』로 집대성하면서 오히려 정조·한식·단오·추석·동지·납일에 건원릉과 제릉에 제향하거나,<sup>41</sup> 국왕의 능행을 제도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sup>42</sup> 그러나 제릉은 한양에서 거리가 먼 개경에 있어 그곳까지 오가는 데만 10여 일이 걸리는데다가 물력도 만만치 않게 소요되어 친행하기가 쉽지 않았다.<sup>43</sup> 따라서 조선후기에는 숙종과 영조 및 고종이 겨우 1차례 제릉에 능행했을 뿐이었다.<sup>44</sup> 하지만 당시 제릉 정자각의 중건과 신도비의 중수가 진행되어 국왕의 능행이 왕릉의 관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조선 왕릉은 지속적으로 관리되었고, 세월이 오래되어 훼손된 건물이나 석물의 수보도 그때그때 이뤄지고 있었다. 우선 제릉만 해도 완공한 지 34년 밖에 안 되는 세종대에 벌써 수보공사가 추진되었다. 1442년(세종 24) 5월에는 제릉과 건원릉 및 현릉 등을 수보하기 위하여 “산릉수리도감”을 설치하여,<sup>45</sup> 이듬해 4월까지 11개월간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하였다.<sup>46</sup> 이는 세종 대에 왕릉의 古制를 연구한 결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조선 왕릉의 문무석인 뒤쪽에 석마가 배치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sup>47</sup>

이후 200여 년 뒤인 조선 후기에 이르러 건물과 비석의 중수와 석물의 수보공사가 다양하게 이뤄졌는데 그 실태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릉의 정자각과 계궁 및 비각 등의 중수공사가 진행되었다. 제릉의 정자각은 17세기에 몇 차례 화재로 소실되고 개건되었다. 1629년(인조 7) 2월 제릉의 정자각이 불에 타,<sup>48</sup> 초석과 전돌만 남았다.<sup>49</sup> 조정에서는 도감을 설치하는 대신 경기감사가 책임지고 정자

40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10월 28일 병자; 『태종실록』 권6, 태종 3년 24일 갑인.

41 『세종실록』 오례의. 능행을 비롯한 길례 서례는 태종대에 정리된 것이다.

42 『국조오례의』, 길례. 56개 조항 중 능행은 拜陵儀와 四時及俗節朔望享講禮儀이다.

43 『중종실록』 권80, 중종 30년 9월 12일 경오, 13일 신미, 14일 임신, 15일 계유. 당시의 코스는 다음과 같다. 경복궁-모화관-迎駕驛(소주정)-彌勒院-넋가(대주정)-벽계역(1박)-廣灘(소주정)-梨川(대주정)-通濟院(2박)-親耕川-넋가(소주정)-板積川(대주정)-穆淸殿(작헌례)-개성부 태평관(3박)-熊川 松亭(소주정)-제릉(의례)-비각-개성부.

44 『영조실록』 권52, 영조 16년 9월 1일 기사; 『승정원일기』 권2930, 고종 9년 3월 2일 병술.

45 『세종실록』 권5, 세종 24년 5월 21일 경진.

46 『세종실록』 권100, 세종 25년 4월 9일 갑오.

47 조선 초기 왕릉에 석마를 증설하는 문제에 대한 논증은 이정선, 앞 논문, pp. 27-31 참조.

48 『인조실록』 권20, 인조 7년 2월 30일 병진.

49 『승정원일기』 권25, 인조 7년 3월 4일 경진.

50 『승정원일기』 권25, 인조 7년 3월 10일 병인, 11일 정묘.

각을 중건토록 결정했다.<sup>50</sup> 농사철을 피해 7월 말 재개되었는데 목수 6인과 석수 3명 및 모군 30명이 징발되었으나, 이 인원으로는 부족하여 선공감 장인들을 가징하여,<sup>51</sup> 8월 26일경에 완공하였다.<sup>52</sup> 이때 수축한 정자각은 16년 뒤인 1645년(인조 23)에 다시 불에 탔다.<sup>53</sup> 이때의 중건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1676년(숙종 2) 6월에 도독이 제기를 흠치려고 침입하여 정자각에 불이 났다고 한 사실로 미루어 세워져 있었고 이때 화재로 또다시 중건공사가 시작되었다.<sup>54</sup> 당시 제릉의 중건청에서 창릉 정자각을 중수하려고 강원도에 배정했던 목재를 제릉에서 사용토록 요청하였고,<sup>55</sup> 7월 22일에는 재목을 운반하기 위하여 장단과 풍덕 등지의 소를 징발하여,<sup>56</sup> 예조참의의 감독 하에 재목을 운반하여,<sup>57</sup> 9월 29일 정자각을 완성하였다.<sup>58</sup> 이때 정자각에서 향사를 드리기 위해 내부의 의장의물도 개비토록 하여,<sup>59</sup> 중건청은 용상과 상탁, 포진 등을 전례대로 제작하였다.<sup>60</sup> 이로부터 17년이 지난 1693년(숙종 19) 8월에 정자각을 다시 수개하였고,<sup>61</sup> 내부에 배치하는 신위평상의 크기에 맞춰 褥과 床石도 개비하였다.<sup>62</sup>

다음, 제릉의 비각은 1744년(영조 20) 9월 비석을 다시 세울 때 현릉의 비각을 전례로 삼아,<sup>63</sup> 10월에 비각 터를 ‘丙坐壬向’으로 확정하였다. 비각은 10월 8일에 시역하여 16일에 상량하였고, 22일에 회를 발랐으며,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단청을 칠하였고, 내부에 전돌

51 『승정원일기』 권27, 인조7년8월4일 병진, 9일 신유, 18일 경오.

52 『승정원일기』 권39, 인조22년8월26일 신사.

53 『인조실록』 권46, 인조23년11월22일 경오.

54 『숙종실록』 권. 숙종2년6월29일 경진; 『승정원일기』 권255, 숙종2년7월2일 임오, 4일 갑신, 6일 병술, 11일 신묘, 15일 을미.

55 『각릉수리등록』, 규2917, 숙묘조2년7월16일; 『승정원일기』 권255, 숙종2년7월15일 을미. 승정원일기와 등록의 날짜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하루의 차이가 있다.

56 『각릉수리등록』, 규2917, 숙묘조2년7월21일; 『승정원일기』 권255, 숙종2년7월22일 임인; 승정원일기와 등록의 날짜는 하루 이틀 차이가 나기도 한다.

57 『승정원일기』 권255, 숙종2년7월30일 경술; 권256, 8월19일 기사, 9월1일 경진, 16일 을미.

58 『승정원일기』 권256, 숙종2년9월29일 무신.

59 『각릉수리등록』, 숙묘조2년 병진7월5일.

60 『각릉수리등록』, 숙묘조2년 병진7월16일.

61 『승정원일기』 권353, 숙종19년8월10일 신사.

62 『승정원일기』 권353, 숙종19년8월30일 신축. 현재의 정자각은 해방 이후 북한당국이 1955년, 1965년, 1975년에 정자각을 중수한 것이다

63 『승정원일기』 권77, 영조20년9월11일 을유, 23일 정유.

64 『제릉신도비영건청의궤』, 계사질, 10월6일, 8일, 11일, 16일, 22일, 23일, 11월6일. 현재의 비각은 1965년에 세운 것이다.

을 깎아 공사를 마무리했다.<sup>64</sup>

한편 제릉의 재공이던 연경사는 이미 1552년(명종 7) 이전에 파괴되어 수리하였으며,<sup>65</sup> 1719년(숙종 45) 3월에 중수하였다.<sup>66</sup>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1788년(정조 12) 사찰이 피폐해 있어 공명첩을 발급하여 수리하였으며,<sup>67</sup> 1796년(정조 20)의 기록에는 제릉의 승려들이 석물을 수보하고 있었다.<sup>68</sup> 그밖에 전사청은 1675년(숙종 1)에,<sup>69</sup> 채실은 1744(영조 20)에,<sup>70</sup> 수라간은 1754년(영조 30)에 수개하였으며,<sup>71</sup> 홍살문은 1771년(영조 48)에 고쳐 세웠다.<sup>72</sup> 또 태종대의 기록에는 제릉 능침 안에서 소나무를 사사로이 벤 자를 의금부에 가두었으며,<sup>73</sup> 세종대에는 수십 년간 수백 명의 백성을 동원하여 송충이를 잡고 있었다.<sup>74</sup>

둘째, <제릉 신도비>는 영조대와 대한제국 시기에 각각 조성된 2기가 비각 내에 세워져 있다(도 2). 1681년(숙종 7) 2월 예조에서 건원릉·제릉·현릉의 비문을 인출하고자 했으나, 제릉의 비석은 임진왜란 중에 파괴되어 비석의 잔편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인출할 수 없었다고 한다.<sup>75</sup> 이 때문에 1741년(영조 17) 5월 제릉 신도비를 개수기로 하였으나,<sup>76</sup> 흥년으로 미뤄졌는데,<sup>77</sup> 礪恩君 李梅의 상소에 따라 1744년(영조 20)에 재추진되었고,<sup>78</sup> 제작 체제는 숙종 대에 현릉신도비를 중수할 때의 전례를 따랐다.<sup>79</sup> 신도비의 규모는 참고로 건원릉의 비

65 『명종실록』 권3, 명종 7년 11월 6일 갑신.

66 『승정원일기』 권14, 숙종 45년 3월 25일 무술.

67 『정조실록』 권645, 정조 12년 8월 16 일사.

68 『정조실록』 권1766, 정조 20년 8월 30 일 임인; 현재는 제릉 동쪽 300m 지점에 연경사 터만 남아 있다(『조선향토대백과』 2, p. 414).

69 『각당수리등록』, 숙묘조 원년 4월 16일.

70 『승정원일기』 권979, 영조 20년 11월 8일 신사.

71 『승정원일기』 권1109, 영조 30년 7월 27일 갑진.

72 『승정원일기』 권1329, 영조 48년 7월 16일 기유, 20일 계축. 1963년 이후 파괴되었고 홍살문의 터만 남아 있다.

73 『태종실록』 권84, 태종 17년 11월 23일 갑술.

74 『태종실록』 권5, 태종 3년 2월 3일 경술, 3월 1일 무인, 4월 21일 정묘; 권11, 태종 6년 5월 17일 병오; 『세종실록』 권11, 세종 3년 4월 16일 무신; 권15, 세종 4년 1월 28일 병술; 권2, 세종 8년 4월 9일 임신, 세종 29년 5월 29일 기미.

75 『승정원일기』 권281, 숙종 7년 2월 25일 기유.

76 『승정원일기』 권31, 영조 17년 5월 17일 경진; 『제릉신도비영건청의궤』, 기사질, 같은날.

77 『승정원일기』 권75, 영조 17년 10월 30일 신유.

78 『정조실록』 권9, 영조 20년 7월 29일 갑진; 『승정원일기』 권75, 같은날; 『제릉신도비영건청의궤』, 기사질, 1744년 8월 7일, 11일, 12일.

79 『승정원일기』 권77, 영조 20년 9월 11일 을유; 『제릉신도비영건청의궤』, 기사질, 같은날. 전례가 된 현릉의 신도비를 세운 기록은 『현릉비석중건청의궤』(규3501), 1695년 참조.

80 『승정원일기』 권77, 영조 20년 9월 7일 신사.



도2 제릉 신도비

석과 견주어 다음의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표 2).<sup>80</sup>

표 2 건원릉과 제릉의 신도비 규격비교

	높이		측면길이		전면폭	
	건원릉	제릉	건원릉	제릉	건원릉	제릉
碑身石	7자3치	7자2치	3자4치5푼	3자2치5푼	9치5푼	1자3치
龍頭石	3자4치5푼	2자8치	3자6치5푼			
龜臺石	6자5치	6자5치	6자5치	6자	높이6자5치	높이3자

위 표에 의하면 제릉의 신도비는 비신석과 용두석과 귀대석의 3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조성, 조립하였다. 부피가 크고 구하기 어려운 비신석은 私儲品을 구입하여,<sup>81</sup> 배에 실어 양

<sup>81</sup> 『승정원일기』 권77, 영조 20년 9월 11일 을유; 『제릉신도비영건청의궤』, 기사질, 같은 날.

<sup>82</sup> 『제릉신도비영건청의궤』, 내관질 9월 15일.

천 - 김포 - 통진 - 풍덕부로 운반하였으며,<sup>82</sup> 귀대석은 ‘헌릉비석중건청’의 전례에 따라 강화도에 부석소를 설치하고 떠났다.<sup>83</sup> 제릉의 비명은 ‘承仁順聖神靈王后齊陵神道碑銘’의 13 글자를 횡서로, ‘신의왕후’를 전면 비액에, ‘제릉비명’ 네 자를 후면 비액에,<sup>84</sup> “승정 기원후 117년 갑자 11월 일 중건”을 추가로 써 넣었다.<sup>85</sup> 1744년(영조 20)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비문을 북칠하여 정서하였고,<sup>86</sup> 11일부터 비석의 전면에 정간을 긋고 총 2,300여 자를,<sup>87</sup> 10월 22일부터 비석 후면에 새겨, 11월 1일 비문을 교정하였고, 11월 4일 길일을 택하여 세웠다. 완성된 제릉의 신도비는 위 표에서 보듯이 견양으로 삼은 건원릉의 신도비와 대체로 비슷하나 약간 작아서 비신석은 길이와 너비가 1촌과 2촌 짧았고, 두께가 3촌 5푼 두꺼웠으며, 용머리도 6촌 5푼 짧았고, 귀대석도 너비 5촌, 두께 3척 5촌이 작았다.

이처럼 영조가 1744년(영조 20) 11월, 제릉에 신도비를 중수한 것은 이후 여러 왕릉에 표석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제릉보다 조금 늦게 시작된 영릉의 신도비는 이듬해(1745) 3월 26일에 세워졌고,<sup>88</sup> 이어 1746년(영조 22)에는 목릉·휘릉·혜릉의 표석을, 1753년(영조 29)에는 회릉·태릉·효릉·강릉·장릉의 표석을, 1754년(영조 30)에는 후릉·현릉·광릉·경릉·창릉·선릉·정릉의 표석을, 1776년(영조 46)에는 정릉을 비롯하여 사릉·공릉·순릉·온릉의 5릉에 표석을 세웠다. 결국 영조가 제릉 신도비를 비롯하여 20기의 역대 왕과 왕후릉에 표석을 새로 세운 것 역시 태종과 마찬가지로 선대왕을 추송하고 왕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이후 고종이 황제국을 선포하면서 1899년(광무 3) 제릉의 신의왕후는 다시 神靈高皇后로 추존되었고, 이듬해(1900년) 설치된 추송의궤도감에서 추존황후의 황릉에 표석을 새로 마련토록 하였다.<sup>89</sup> 제릉 표석의 전면과 음기는 고종황제의 어필로 썼으며,<sup>90</sup> 1904년 표석소에서 새겼다.<sup>91</sup> 현재 제릉 신도비 앞면에는 ‘大韓神靈高皇后齊陵’이, 뒷면에는 ‘承仁順聖神

83 『승정 원일기』 권77, 영조 20년 9월 11일 을유; 권77, 영조 20년 9월 13일 정해.

84 『승정 원일기』 권77, 영조 20년 9월 17일 신묘; 『제릉신도비영건청의궤』, 기사질, 같은 날.

85 『승정 원일기』 권77, 영조 20년 9월 24일 무술; 권78, 영조 20년 10월 3일 병오, 5일 무신; 『제릉신도비영건청의궤』, 기사질, 1744년 9월 23일로 하루 앞섰다.

86 『승정 원일기』 권78, 영조 20년 10월 8일 신해, 9일 입자.

87 『제릉신도비영건청의궤』, 기사질, 1744년 10월 10일, 11일.

88 『승정 원일기』 권84, 영조 21년 3월 26일 무술.

89 『고종실록』 권40, 고종 37년 6월 12일 양력. 당시 건원릉, 제릉, 정릉, 용릉, 건릉, 인릉, 수릉의 표석을 고치거나 새로 마련하였다.

90 『고종실록』 권40, 고종 37년 6월 19일 양력.

91 『고종실록』 권44, 고종 41년 5월 25일 양력.

懿王后韓氏太祖高皇帝元后'라 하여 신의왕후의 시호와 함께 풍덕 북속촌 甲坐 언덕에 장례를 지낸 사실과 대한제국 황후로 시호를 올린 사실 및 1900년에 표문을 쓴 기록을 추가하여 새로 세웠다.

셋째, 능상의 각양 석물은 지속적으로 관리되었고 훼손되면 보수하였다. 조선 후기에 왕릉은 정례적으로 관리되고 매년 한식날에는 예조에서 봉심하였으며, 폭우로 훼손되면 그때마다 조정에 보고하여 수개하였다. 능상 석물을 수보한 이른 예는 1642년(인조 20)부터였다. 당시 좌우변과 전후면의 병풍석과 왼쪽 囊石 1편을 꼼꼼히 살펴 회가 떨어져 나간 곳을 발랐고,<sup>92</sup> 동쪽 石虎의 오른쪽 귀가 결실된 것을 유회로 발랐다.<sup>93</sup> 이후에도 곡장의 수개, 사대석물의 회칠, 사초의 교체가 실시되었고, 그 사례를 각종 기록에서 찾아본 결과 다음의 <표 3>과 같았다(표 3).<sup>94</sup>

표 3 능상의 수개와 사대석물의 회칠

	인조	현종	숙종	영조	정조	고종	순종
곡장수개		1	3	11	2	2	1
석물회칠	1	1	3	8	4		
사초교체			1	3			
총횃수	1	2	7	22	6	2	1

위 표에 의하면 제릉에 능행을 갔던 숙종대 7회와 영조대 22회나 수개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국왕의 관심과 왕릉의 관리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릉의 능참봉이 보고한 가운데 폭우로 곡장이 무너지고 흙이 석물을 덮었던 1690년(숙종 18) 6월에도 석호의 귀가 파손되었다.<sup>95</sup> 일반적으로 왕릉에 문제가 생기면 석물을 봉심하고 수개하는 데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 3개월 뒤인 9월 7일에야 끝나고 있어 석호를 수리하였으며,<sup>96</sup> 10월 11일에는 훼손되었던 망주석을 다시 배치하고 있었다.<sup>97</sup> 1758년(영조 34) 6월에

<sup>92</sup> 『각릉수개등록』, 인조 20년 4월 26일, 27일.

<sup>93</sup> 『각릉수개등록』, 인조 20년 5월 12일.

<sup>94</sup> 제릉의 수리는 실록과 승정원일기 및 『각릉수리등록』과 『각릉수개등록』에서 찾을 수 있으나 기록마다 차이가 있고, 수리한 곳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는 드물다.

<sup>95</sup> 『승정원일기』 권 48, 숙종 18년 6월 18일 병신, 19일 정유, 22일 경자.

<sup>96</sup> 『승정원일기』 권 49, 숙종 18년 9월 7일 계축.

도 큰 비로 곡장이 무너지면서 3층 지대석 한 닢이 깨졌고 양호석이 반 정도가 흠덩이 속에 묻혀버렸다.<sup>98</sup> 1765년(영조 41) 5월에는 비로 무너진 곡장의 흠이 덮쳐서 상계석 9립, 중계석 8립, 하계석 7립이 어긋나거나 빠져서 보수하였다.<sup>99</sup>

이처럼 왕릉을 보수하는 관례가 법제화한 것은 정조 1795년(정조 20) 8월 18일이었다.<sup>100</sup> 이를 토대로 제릉의 석물들도 개성의 감영에서 감독토록 하였고,<sup>101</sup> 연경사의 승려들을 동원하여 보수하게 하여,<sup>102</sup> 1907년(순종 즉위년)에 제릉의 석물을 보수할 때에도 승려들이 이를 수리하였다.<sup>103</sup>

#### IV. 제릉 석물의 종별과 양식적 특성

제릉의 상설은 정조대의 『春官通考』로 확인할 수 있다. 능상에는 곡장 3면, 병풍석 12면, 난간석 12면, 혼유석 1좌, 장명등 1기, 망주석 1쌍, 문석인 1쌍, 무석인 1쌍, 마석 2쌍, 양석 2쌍, 호석 2쌍이 있었다. 능상 아래에는 정자각이 있고, 정자각으로부터 오른쪽에 수라청 3칸, 동북방면 53보에 망료위, 동남쪽 61보에 신도비 1기, 남쪽으로 242보에 홍살문이 있었다. 홍살문 동쪽 1,202보에 전사청 8칸이, 재실 동쪽으로 길이 12보에 蓮池가 있었다.<sup>104</sup> 이로 미루어 볼 때 18세기 말 제릉의 상설은 <제릉 실측도면>(도 3)이나 <제릉 능상전경>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도 4).<sup>105</sup>

따라서 이 장에서는 태종 당시 조성한 제릉 능상의 석물을 상·중·하계로 나누어 여말선초의 왕릉과 비교하되, 시대에 따라 형태가 변하거나 문양이 달라지는 석물을 중심으로 그 양식적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sup>97</sup> 『승정원일기』 권350, 숙종 18년 10월 11일 병술, 16일 신묘. 현재 제릉 망주석은 17세기의 양식적 특징을 보이고 있어 기록과 부합된다. 『조선왕릉 종합학술보고서I』, pp. 154-155.

<sup>98</sup> 『승정원일기』 권1157, 영조 34년 6월 25일 기묘.

<sup>99</sup> 『승정원일기』 권1243, 영조 41년 5월 17일 신묘.

<sup>100</sup> 『정조실록』 권45, 정조 20년 8월 18일 경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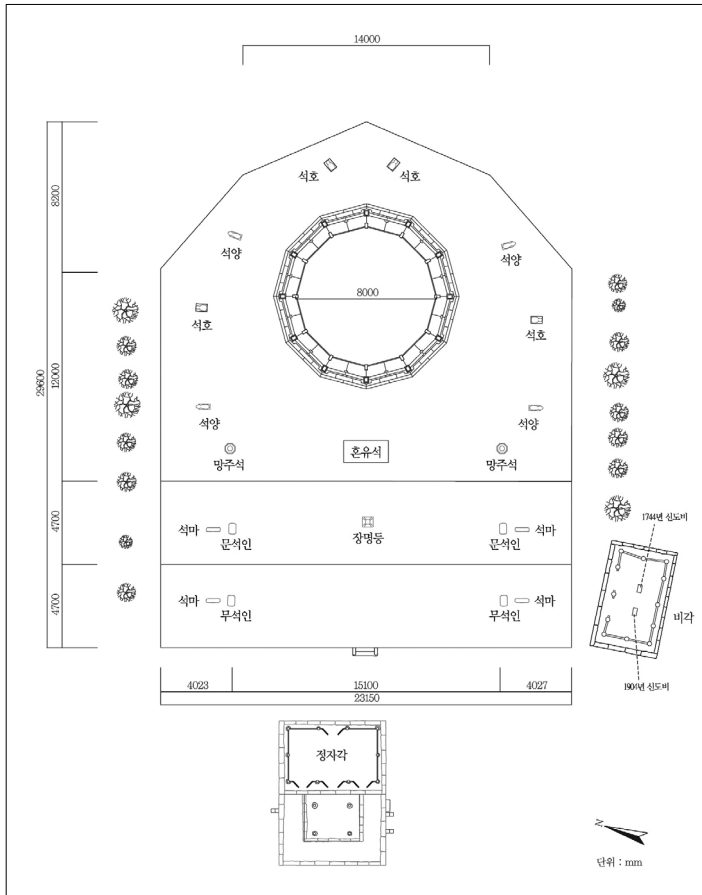
<sup>101</sup> 『정조실록』 권45, 정조 20년 8월 26일 무술.

<sup>102</sup> 『정조실록』 권45, 정조 20년 8월 30일 임인.

<sup>103</sup> 『순종실록』 권1, 순종 즉위년 9월 11일(양력).

<sup>104</sup> 『春官通考』 권17, 길례. 능침. 僊元陵 齊陵. 건원릉의 상설 중에는 正中石이 있으나, 정중석은 건원릉 이외에는 배설되지 않았음이 서술되어 있다.

<sup>105</sup> 제릉 석물의 현재 모습은 『조선왕릉 종합학술보고서I』, pp. 149-160 참조.



도3 제릉 실측도면



도4 제릉 능상전경



도5 사대석 : 도5-1 현·정릉사대석 도5-2 정릉사대석

도5-3 체릉사대석

첫째, 상계의 석물은 3면의 곡장 안쪽에 봉토분을 둘러싼 莎臺石과 난간석, 그 바깥쪽의 석양과 석호, 봉분 앞의 혼유석과 망주석이 배치되어 있다. 우선 사대석은 地臺石·面石·隅石·滿石·引石과 이와 평행하게 치마처럼 깎인 博石(裳石), 그 주위를 빙 두른 난간석(난간석주, 동자석주, 죽석)으로 구성된다. 왕릉에 護石을 병풍처럼 두르고 각 방위에 십이지신상을 배치하는 것은 신라 제33대 성덕왕(702~737년) 이후 우리나라 왕릉에서 발견되는 고유한 묘제이다.<sup>106</sup> 고려 왕릉도 신라의 능제를 따라 호석에 십이지신상을 새겼는데, 고려 말부터는 십이지신상의 위치가 우석에서 면석으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칠릉때3릉에서는 사대석의 기본구조도 갖추어 있었다.<sup>107</sup> <현·정릉 사대석>의 지대석과 만석에는 연꽃무늬가, 면석에는 구름 위에 의관을 갖춘 십이지신상이, 우석의 좌우에는 금강령과 금강저가 빼곡하게 새겨져 있다. 특히 지대석과 만석 및 면석의 문양은 조선 초기 신덕왕후의 <정릉 사대석>을 비롯하여,<sup>108</sup> 신의왕후의 <체릉 사대석> 및 태조의 건원릉 사대석까지 精粗의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도5). 그런데 사대석 중 만석 위로 불쑥 튀어나온 인석의 문양은 달랐다. <현·정릉 인석>과 조선 초기 <정릉 인석>에는 금강저를 X자형으로 교차하여 마치 네잎꽃(四葉花)처럼 묘사했고(도6),<sup>109</sup> 이는 건원릉을 비롯한 이후 대부분의 왕릉에 새겨진 모란이나 葵花형 꽃무늬와 흡사하다.<sup>110</sup> 그러나 유독 <체릉 인석>은 용머리 조각이 불쑥 튀어나온 형상이며, 이것은 창덕궁 금천교 난간 아래에 배치된 <용머리 조각>(보물 386호)과 거의 비

<sup>106</sup> 신라 왕릉의 석물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은 『신라고분 기초학술조사연구 4 - 석조물자료』(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2007).

<sup>107</sup> 『고려왕릉』, p. 103. <명릉때2릉>; p. 111. <랭정릉때2릉>; p. 128. <칠릉때2릉>.

<sup>108</sup> 『청계천』(서울역사박물관, 2006), p. 62; 『여기자가 파헤친 조선왕릉의 비밀 1』, pp. 84-85. 정릉 사대석의 면석과 우석 및 난간석은 현재 복원된 청계천에 배치되어 있어 조성 당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sup>109</sup> 『청계천』, p. 63.

<sup>110</sup> 『세종실록』 오례의, 치장. 引石. “每石外端 或刻牡丹 或刻葵花 相間排設”



도6 인석 : 도6-1 현·정릉인석



도6 인석 : 도6-2 정릉인석



도7 인석 : 도7-1 계릉인석



도7-2 창덕궁금천교 용머리조각

숫하다(도7).<sup>111</sup> 1405년(태종 5)에 창덕궁의 금천교 공사를 감독했던 이가 박자청이었고,<sup>112</sup> 그는 2년 뒤(1407년) 계릉의 역사를 책임졌기 때문에 양자는 양식적으로 유사해진 듯하다. 하지만 계릉 이후 그가 조성한 건원릉에는 용머리가 생략되고 있어, 아마도 태종이 아버지 [태조]보다 어머니 [신의왕후]를 애뜻하게 여긴 나머지 건원릉보다 계릉에 더 정성을 기울인 탓이 아닐까 여겨진다.

한편 봉분 주위의 석수는 석양 2쌍과 석호 2쌍이 있었다. 신라 왕릉의 석수는 석사자였

<sup>111</sup> 최중덕, 『창덕궁 육백년』(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 2005), p. 13. 도판 〈창덕궁금천교〉

<sup>112</sup> 『태종실록』 권0, 태종 5년 10월 25일 정해.

으며, 이것이 고려 전기까지 이어지다가 고려 후기부터 양과 호랑이로 바뀌었다.<sup>113</sup> 원간섭기에 조성된 칠릉묘3릉과 현·정릉에는 양과 호랑이가 번갈아 배치되어 있다. 제릉을 비롯하여 여말선초 왕릉에 배치된 석호와 석양 중 동쪽 첫 번째의 것을 대상으로 실측한 크기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표 4).

표 4 여말선초 왕릉 석수의 크기

(측면길이×전면폭×높이, 단위cm)

	석호	석양
현정릉	80.0×140.0×152.0	70.0×141.5×130.0
제릉	72.6×120.2×110.0	53.3×120.0×103.0
건원릉	90.7×143.9×131.3	55.2×151.6×79.8
후릉	52.0×110.0×90.0	44.5×120.0×90.0

위 표에 의하면 석호와 석양의 크기는 현·정릉, 건원릉, 제릉, 후릉의 순서로 점점 작아졌다. 그런데 제릉 석수의 크기가 유난히 건원릉보다 작은 경우는 앞서 살핀 인조대와 숙종대에 석호의 귀가 파손되거나 흙에 묻혀 있던 것을 고치면서 원래의 크기보다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석양과 석호의 모습에는 시대적 변화상이 확연히 반영되어 있다. <현·정릉 석양>은 고려 말 칠릉묘3릉의 석양과 마찬가지로 네 다리로서 있지만 앞뒤 다리 사이가 막혀 있다.<sup>114</sup> 그러나 <제릉 석양>은 네 다리가 뚫린 채 서 있으며, 이것은 <건원릉 석양>으로 이어진다(도 8). 한편 얼굴이 네모지고 과장된 표정의 <현·정릉 석호>는 신체의 골격이 다부지고 근육이 강조되는 모습이다.<sup>115</sup> <제릉 석호>와 <건원릉 석호>는 네모진 얼굴선에 미소가 번지듯 부드러워지고 신체는 두리뭉실해져 자연스러워지는 경향이 있다(도 9).<sup>116</sup>

<sup>113</sup> 『麗朝王陵繪錄』, 1662년 ; 『고려왕릉』, p. 25. 고려 제19대 명종 자릉에 양호석 4기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현존 여부는 알 수 없다.

<sup>114</sup> 고려왕릉과 달리 북송 황릉이나 金陵 앞의 석양은 모두 무릎을 꿇고 있다.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 편, 『北宋皇陵』(中州古籍出版社, 1997), p. 75. 도 55. 영희릉 석양; 鮑海春·王禹浪, 『金源文物圖集』(哈爾濱出版社, 2001), p. 156. 도 232. 석양; 徐自強·吳繁麟, 『古代石刻通論』(紫禁城出版社, 2003), p. 255. 도 94-4. 석양.

<sup>115</sup> 『金源文物圖集』, p. 155. 도 231. 후릉강 이성시 금릉 출토 석호는 98cm로 크기가 작고 주둥이가 네모지며 경직된 형태로서 고려 석호와 유사하다.

<sup>116</sup> 『조선왕릉 종합학술조사보고서 I』, p. 152. 건원릉이 제릉보다 늦게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릉의 석수가 건원릉의 석수양식을 계승하였다고 보았다.



도8 석양 :  
도8-1 현·정릉 석양



도8-2 제릉 석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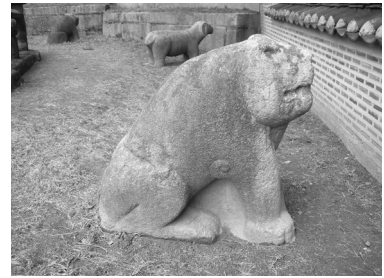
도8-3 건원릉 석양



도9 석호 :  
도9-1 현·정릉 석호



도9-1 제릉 석호



도9-3 건원릉 석호

둘째, 제릉 중계의 중앙에 배치된 육각 장명등은 고려와 조선 왕릉의 양식적 시기구분을 가능케 하는 또 다른 요소이다. 물론 왕릉 앞에 석등이 배치된 것 또한 고려 후기부터이고, 중국 황제릉에서는 볼 수 없다. 다른 고려 왕릉 앞 석등처럼 〈현·정릉 장명등〉 또한 사각 형태의 회사석을 앞뒤로 크게 뚫어 개성 개국사 석등과 흡사하며,<sup>117</sup> 기대석 중앙의 안상에 불교적 상징의 화염무늬를 새겨 넣었다. 현·정릉과 같은 형태와 무늬의 석등은 김사행이 감독하여 조영한 신덕왕후의 초기 무덤인 〈정릉 장명등〉에도 나타난다. 반면 〈제릉 장명등〉은 승탑식의 육각형이다. 부도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원당형 형태는 개성 원통사 부도와 비슷하나,<sup>118</sup> 중대석의 문양에 연주형과 근자문을 새기거나 육개석 아래에 목조 결구까지 세밀하게 묘사한 것은 전대와 확연하게 다른 점이다. 더욱이 제릉의 장명등은 육개석 위의 연봉이 결실되었을 뿐 육개석 처마 끝에 용머리 장식이 없혀 있고 목조 건물의 가구형식이 치밀하고 정교하게 표현되어있다. 이에 비해, 〈건원릉 장명등〉은 전술한 인식의 경우처럼 용머

<sup>117</sup> 『북한문화재해설집 1-석조물편』, p. 169. 도3-2.

<sup>118</sup> 『북한문화재해설집 1-석조물편』, p. 119; p. 132. 도2-2. 〈원통사 부도〉



도10 장명등: 도10-1 현·정릉장명등 도10-2 정릉장명등 도10-3 계릉장명등 도10-4 건원릉장명등



도11 현·정릉 문석인 앞뒤

리 장식 대신 귀꽃이 배치되면서 대체로 간략해지고 결구처리도 단순해졌다(도10). 이처럼 계릉과 건원릉의 장명등은 세부 묘사나 조각적인 精粗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박자청의 감독 아래 조성된 승탑식 원당형 석등이라는 점은 공통되었고 이후 조성되는 조선 초기 왕릉 석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다음으로 계릉 중계의 석물 중 교각복두를 쓴 문석인 또한 주목된다. 고려 말 현·정릉과 칠릉때3릉에는 높고 짧은 문석인을 마주 배치하였는데(도11),<sup>119</sup> 계릉에는 동쪽에 높은 문석인 1기, 서쪽에 짧은 문석인 1기를 세웠고(도12), 건원릉에는 높은 문석인만 마주 보게 배치되어 차이를 보였다(도13). 중국에서 복두를 쓴 문석인은 북송대에는 말을 끄는 控馬官에

<sup>119</sup> 『고려왕릉』, p. 91; p. 107; p. 129; p. 135.



도12 제릉 문석인 앞뒤



도13 간원릉 문석인 앞뒤



도14 충릉 문석인 앞뒤

서 찾을 수 있으며,<sup>120</sup> 중국 금대 황릉의 문석인은 양관을 쓰고 있고,<sup>121</sup> 원 세조의 딸인 제국 대장공주의 고흥 문석인 또한 양관을 썼다.<sup>122</sup> 이에 비해 원 간섭기의 고려 왕릉의 문석인은 충정왕의 <충릉 문석인>(도14)처럼 각끝이 X자형으로 교차되는 교각복두를 착용하고 있었다. 결국 고려 전기 왕릉의 문석인들은 중국 황릉 문석인처럼 양관을 썼으나 원간섭기에 들어 복두를 쓴 모습으로 바뀌었고, 이러한 제후릉의 양식적인 경향이 조선 왕릉에도 이어졌다. X자형 교각복두를 쓰고 團領의 公服을 입은 제릉의 문석인은 현·정릉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고 사실적이고 뒷모습에 대대가 표현되어 있는 점도 비슷하다. 그러나 건원릉 이후 초기의 문석인은 흠을 든 두 손이 넓은 소매로 가려져 있고 앞뒤 모습이 생략되고 간략해진 면모를 보였다.

셋째, 제릉의 하계에는 갑주를 갖춘 무석인이 마주 서 있다. 고려 말 현·정릉에는 젊고 늙은 무석인이 1쌍씩이(도15), 제릉에는 늙고 젊은 무석인이 각각 1기씩이(도16), 건원릉에는

<sup>120</sup> 『北宋皇陵』, p. 72. 도 52, 영희릉 控馬官은 교각복두를 쓴 모습이다.

<sup>121</sup> 『金源文物圖集』, p. 237. 도 237. 石翁仲. 1995년 5월 흑룡강성 아성시 금릉 출토 문석인은 185cm의 크기에 양관을 쓰고 손에 흠을 들고 있다.

<sup>122</sup> 『북한문화재해설집-석조불편』, p. 300. 도 7-15-1, 2; 『고려왕릉』, pp. 94-95.



도15 현·정릉 무석인 앞뒤



도16 계릉 무석인 앞뒤



도17 건원릉무석인 앞뒤

높은 무석인 1쌍이 배치되어 있다(도17). 고려 왕릉에서 갑주로 무장한 무석인을 배치한 것은 현·정릉부터인데,<sup>123</sup> 이것은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반원정책을 내세워 고려의 자주성을 회복하고자 했던 공민왕이 황제릉을 조성하려는 의지가 표출된 것이 아닌가 싶다. 조선 초기 지배층도 요동정벌을 내세우는 등 자주적 입장에서 대외정책을 추진하였으며,<sup>124</sup> 이를 바탕으로 상무적이던 조선 초기의 국왕들은 전대의 전례를 따라 무석인을 계속 조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현·정릉의 무석인이 착용한 갑주는 북송대〈황제릉 무석인〉의 갑주보다는,<sup>125</sup> 오히려 금대 황제릉이나 원대 제후릉의 무석인과 흡사하였다.<sup>126</sup>

현정릉의 무석인이 넓적한 얼굴에 위압적인 형상이라면, 제릉의 무석인들은 얼굴과 이

<sup>123</sup> 조선 현종 3년(1662)의 『麗朝王陵繪錄』에 의하면 고려 제9대 명종 지릉에 장군석 3개가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sup>124</sup> 조민, 「高麗末 朝鮮初 對中關係 研究」(원광대학교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pp. 173-176.

<sup>125</sup> 임영애, 앞의 논문. 무석인의 갑주를 송대 갑옷과 연관시켜 치밀하게 논증하였는데, 북송대 황제릉의 무석인의 갑주 양식과는 거리가 있어 향후 별도로 다루려 한다. 『北宋皇陵』, p. 81, 도 63, 永熙陵 西列武士.

<sup>126</sup> 『金原文物圖集』, p. 162, 도 238. 금대 황제 무석인; 『中國文物地圖集·黑龍江省分冊』, p. 332. 원 세조 때 忠武王 忠武王陪臣으로서 中奉大夫에 봉해진 張應端 능묘 앞 무석인을 예로 들 수 있다.

목구비가 둥글고 친근한 얼굴로 변화되었다. 제릉의 두 무석인이 착장한 갑옷의 기본 형식은 현·정릉과 같으나 세부 무늬는 달라져, 사슬무늬와 영지운무늬 및 비늘무늬 등 현·정릉의 좁고 높은 무석인의 갑옷무늬가 절충되었다. 또 현·정릉의 무석인은 두 손을 모으거나 칼을 집는 두 종류였으나, 제릉의 무석인은 두 손을 모았고, 허리 아래에 치마처럼 입던 裳甲을 생략하고 구불구불한 굽은 천으로 빈 공간을 새롭게 채워 넣었다. 뒤쪽의 허리띠에서도 현·정릉의 무석인은 금속제 허리띠에서 굽은이의 것은 5꽃잎판이 도드라지는 반면 높은이의 것은 네모진 금판에 단정하게 꽃잎을 투조해 넣고 있었다. 건원릉 이후 조선 왕릉의 무석인은 양손으로 칼을 집는 형태로 통일되었고 제릉 이후 조선 초기 무석인의 허리띠는 높은 무석인의 것으로 간결하게 처리되었다. 현·정릉의 무석인은 소매부리를 질끈 묶어 늑갑 옆에 얽전하게 내려뜨렸으나, 제릉의 무석인은 질끈 묶은 소매가 풍선처럼 한껏 부풀어 장식적으로 처리되었다.

이처럼 태종대에 제릉과 건원릉을 조성하고 세종대에 후릉을 조성하면서 확립된 왕릉 제도는 세종의 의지대로 五禮義에 반영되었고,<sup>127</sup> 『국조오례의』에 수록, 간행되었다.<sup>128</sup> 이에 여말선초 문무석인 중 첫 번째 것의 실측치와 국가 禮典에 기록된 수치를 비교해보기 위해 다음의 <표 5>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표 5).

표 5 여말선초 왕릉 실측치와 禮典의 문무석인 치수

(측면길이×전면폭×높이 / 영조척 1척 = 31.22cm<sup>129</sup>)

	현·정릉	제릉	건원릉	후릉	세종실록 국조오례의
문석인	142×140.5×345	119.5×118.5×295	87.9×80.3×232	85×86×178	8자 3치 ×3자 ×2자 2치 환산치 ; 259×93×68 (cm)
무석인	131×76.5×350	108×110×298	89.2×77.8×222.1	73×70×175	9자×3자×2자 5치 환산치 ; 280×93×78 (cm)

위의 표에 의하면 현정릉 문석인은 345cm였다. 고려왕릉 중 고려 말 원간섭기에 복두를 쓴 문석인은 소릉떼 4릉(167cm), 총릉(200cm), 7릉떼 3릉(210cm), 7릉떼 6릉(189cm)여서, 현정릉의 문석인이 이전보다 두 배 정도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초기 문석인은 제릉

<sup>127</sup> 『세종실록』 권34, 오례의, 흥례의식 치장조

<sup>128</sup> 『국조오례의』, 흥례 치장조

<sup>129</sup> 『세종실록』 권113, 세종 28년 9월 27일 임진. 영조척은 세조대에 31.22cm로 통일되었고, 1902년(광무 6)에는 지금과 같이 30.30cm로 고정되었다(박성훈, 『단위어사전』[민중서림, 1998]).

295cm, 건원릉 232cm, 후릉 178cm의 순서로 시기가 내려가면서 점차 작아졌고, 무석인도 마찬가지로 순서였다. 특히 후릉을 조성한 이후 『세종실록』 오례의와 『국조오례의』를 간행할 때 영조척으로 규정한 문석인은 8자 3치(259cm), 무석인은 9자(281cm)이었는데, 칩수로 미루어 조선 초기 왕릉 중 제릉의 문무석인이 典範에 가장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 제릉의 문무석인은 비록 길이는 현·정릉보다 작았지만 건원릉보다 크고 당당했으며, 신체비례가 안정적이고, 앞뒤 두께가 커서 양감이 풍부하고 균형이 잘 잡혀 있었다.

## V. 맺음말

조선시대의 국왕들 중 정통성이 결여된 왕들은 자신의 왕위계승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선대를 왕릉에 안장하고 신위를 종묘에 안치하여 국가적 享祀를 받들게 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태종도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군주였다. 따라서 태종은 의도적으로 태조의 원비이자 자신의 친모인 청주 한씨를 신의왕태후로 추존하고, 그 무덤을 왕릉으로 조성하였으며, 태조와 함께 종묘에 부묘하였다. 그러나 태조의 계비이자 조선 최초의 왕비로서 왕후가 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신덕왕후 강씨의 정릉은 천장하고 종묘에 들이지 않았다.

태종이 조성한 제릉이 조선 초 왕릉의 전범으로 자리매김한 것도 이러한 태종의 의도가 깔려있었기 때문이다. 태종은 제릉을 조성할 때 신도비를 세우거나 재궁을 영건하거나 능상 석물들을 조성하되 어느 왕과 왕비보다 훌륭하게 조영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바탕에 깔고 조성된 제릉의 여러 조형물들은 나름대로의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첫째, 태종이 조성한 제릉의 건물과 석물에는 전대에 유행하던 불교적 상징성이 여전히 두드러졌지만 유교적 색채도 가미되었다. 능침사찰이던 연경사는 신의왕후의 명복을 불법에 의탁하여 빌었을 뿐 아니라 왕릉을 수호하고 나아가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능침 주위 사대석물은 면석에 불교적인 금강저·금강령을 새겼고, 위쪽 인석에는 용머리를 배치하여 국왕의 위상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장명등은 고려 말에 흔하던 사각 형태에서 승탑식 원당형의 육각 형태를 새롭게 채택하여 유교가 국시였음에도 불교에 경도되었던 조선 초기 왕실 불교의 일면을 반영하였다.

둘째, 제릉에 대한 국왕의 능행과 신도비의 조성은 왕권강화의 상징이었다. 태종은 1년에 한 번 이상의 능행으로 사친인 신의왕후에 대한 효심을 널리 알렸고, 동시에 수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수렵과 열병을 실시하여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였다. 우람한 빗돌을 아름답

게 조각한 신도비에는 신의왕후의 공덕과 자신의 왕위계승을 정당화하는 내역을 새겨 당대는 물론 후대의 왕과 제신들이 숙지하게 하였다. 영조나 고종황제가 신도비를 중수한 것도 여기에 연유했던 것이다.

셋째, 제릉은 고려 왕릉의 기본 구조 위에 새로운 조형요소를 도입하여 조선 초기 왕릉의 제도를 확립하는 데 전범이 된 왕릉이었다. 신덕왕후의 정릉은 고려 말 현·정릉의 전통을 계승한 데 비해, 제릉은 건원릉을 비롯한 조선 초기 왕릉의 양식에 영향을 끼쳤다. 신도비는 조선 초기 왕릉의 지표라 할 수 있는 기념비적 조형물이 되었고, 육각형태의 장명등은 고려 왕릉과 구별되는 두드러진 변화로서 적용되었고, 사대석물의 문양은 불교적인 경향에서 유교적인 것으로 대체되었다. 한편 석양과 석호, 교각복두를 쓴 문석인이나 감주를 갖춘 무석인은 원간섭기 왕릉부터 등장하는 새로운 요소로서, 조선 초기 제릉부터 석수의 과장된 형태는 사실적으로 바뀌었고, 문·무석인의 형태와 세부 문양은 취사선택이 이뤄지는 등 조선식으로 변형되어 건원릉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제릉은 여말선초 왕릉의 양식으로서 건원릉을 조성할 때 선례가 되었으며, 현존하는 조선왕릉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오늘날 조선왕릉의 전범을 확립하는데 획기적인 왕릉이었다. 하지만 제릉의 형태와 양식적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례가 되는 고려 말기의 왕릉이나 동시기의 중국 황제릉 및 조선 태조의 시조왕릉들에 대한 연구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주제어(key words) \_ 조선왕릉(Royal Tomb of the Joseon Dynasty), 제릉(Jereung), 건원릉(Geonwonneung), 신도비(stone stele), 재궁(coffin), 능상 석물(graveyard stone monuments), 능행(procession to royal tomb)

## 참고문헌

### 1. 원전, 고문서

- 『國朝五禮義』  
『名陵修改摺錄』  
『名陵修理摺錄』  
『承政院日記』  
『麗朝王陵摺錄』  
『燃藜室記述』  
『齊陵神首碑營建廳義軌』  
『朝鮮王朝實錄』  
『春官通考』  
『廣州陵碑石重建廳義軌』

### 2. 저서, 단행본

- 『가보고 싶은 왕릉과 그 기록 : 풀어쓴 후릉개수도감의궤』, 문화재연구소, 2008.  
『문화유산 왕릉』, 한국문원, 1995.  
『북한문화재해설집 1-석조물-』, 국립문화재연구소, 1907.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조선시대』,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신라고분 기초학술 조사연구 4-석조물자료-』, 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2007.  
『조선왕릉 종합학술조사보고서I』,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조선향토대백과』 2, 평화문제연구소, 2005.  
『조선향토대백과』 2, 평화문제연구소, 2005.  
『청계천』, 서울역사박물관, 2006.  
睦乙洙, 『高麗·朝鮮陵誌』, 文成堂, 1988.  
徐自強·吳繁麟, 『古代石刻通論』, 紫禁城出版社, 2003.  
殷光俊, 『朝鮮王陵石物志』, 民俗苑, 1992.  
장경희, 『아름다운 우리 문화재 3 고려왕릉』, 예맥, 2008.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편, 『조선유적유물도감』 14, 외국문종합출판사, 1993.

- 최종덕, 『창덕궁 육백년』, 문화계청창덕궁관리소, 2005.  
 鮑海春·王禹浪, 『金源文物圖集』, 哈爾濱出版社, 2001.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 편, 『北宋皇陵』, 中州古籍出版社, 1997.  
 한기문,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민족사, 1998.  
 한성희, 『여기자가 파헤친 조선왕릉의 비밀 1』, 솔지미디어, 2006.

### 3. 논문, 보고서

- 박천식, 「朝鮮 建國功臣의 研究」, 전남대학교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85.  
 윤두수, 「神德王后에 관한 研究」, 『石堂論叢』 제15집, 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원, 1989.  
 이경순, 「朝鮮肅祖 陵墓 石人像 研究」, 동국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5.  
 李貞善, 「조선전기 왕릉 石人石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임영애, 「開城 恭愍王陵 石人像 研究」, 『강좌 미술사』 17, 한국미술사연구소, 2001.  
 장경희, 「조선후기 山陵都監의 匠人연구」, 『역사민속학』 제25호, 민속원 2007, 11.  
 장지연, 「麗末鮮初 遷都논의와 한양 및 개경의 도성계획」, 서울대학교대학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정경희, 「朝鮮肅祖 禮制·禮學 研究」, 서울대학교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8.  
 조 민, 「高麗末 朝鮮初 對中關係 研究」, 원광대학교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허홍식, 「高麗의 王陵과 寺院의 關係」, 『고려시대연구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조선시대의 국왕들 중 정통성이 결여된 왕들은 자신의 왕위계승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선대를 왕릉에 안장하고 신위를 종묘에 안치하여 국가적 享祀를 받들게 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태종도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군주였다. 따라서 태종은 의도적으로 태조의 원비이자 자신의 친모인 청주 한씨를 신의왕태후로 추존하고, 그 무덤을 왕릉으로 조성하였으며, 태조와 함께 종묘에 부묘하였다. 그러나 태조의 계비이자 조선 최초의 왕비로서 왕후가 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신덕왕후 강씨의 정릉은 천장하고 종묘에 들이지 않았다.

태종이 조성한 제릉이 조선 초 왕릉의 전범으로 자리매김한 것도 이러한 태종의 의도가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태종은 제릉을 조성할 때 신도비를 세우거나 계공을 영건하거나 능상 석물들을 조성하되 어느 왕과 왕비보다 홀륭하게 조영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바탕에 깔고 조성된 제릉의 여러 조형물들은 나름대로의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첫째, 태종이 조성한 제릉의 건물과 석물에는 전대에 유행하던 불교적 상징성이 여전히 두드러졌지만 유교적 색채도 가미되었다. 능침사찰이던 연경사는 신의왕후의 명복을 불법에 의탁하여 빌었을 뿐 아니라 왕릉을 수호하고 나아가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능침 주위 사대석물은 면석에 불교적인 금강저·금강령을 새겼고, 위쪽 인석에는 용머리를 배치하여 국왕의 위상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장명등은 고려 말에 흔하던 사각 형태에서 승탑식 원당형의 육각 형태를 새롭게 채택하여 유교가 국시였음에도 불교에 경도되었던 조선 초기 왕실 불교의 일면을 반영하였다.

둘째, 제릉에 대한 국왕의 능행과 신도비의 조성은 왕권강화의 상징이었다. 태종은 1년에 한번 이상의 능행으로 신의왕후에 대한 효심을 널리 알렸고, 동시에 수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수렵과 열병을 실시하여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였다. 우람한 빗돌을 아름답게 조각한 신도비에는 신의왕후의 공덕과 자신의 왕위계승을 정당화하는 내역을 새겨 당대는 물론 후대의 왕과 제신들이 숙지하게 하였다. 영조나 고종황제가 신도비를 중수한 것도 여기에 연유했던 것이다.

셋째, 제릉은 고려 왕릉의 기본 구조 위에 새로운 조형요소를 도입하여 조선 초기 왕릉의 체도를 확립하는 데 전범이 된 왕릉이었다. 신덕왕후의 정릉은 고려 말 현·정릉의 전통을 계승한 데 비해, 제릉은 건원릉을 비롯한 조선 초기 왕릉의 양식에 영향을 끼쳤다. 신도비는 조선 초기 왕릉의 지표라 할 수 있는 기념비적 조형물이 되었고, 육각형태의 장명등은 고려 왕릉과 구별되는 두드러진 변화로서 적용되었으며, 사대석물의 문양은 불교적인 경향에서 유교적인 것으로 대체되고 있었

다. 원간섭기부터 제작되기 시작한 석양·석호 및 교각복두를 쓴 문석인이나 감주를 입은 무석인이 조선 초기에도 여전히 조성되었다. 그러나 과장된 형태를 줄이고 세부 문양을 취사선택하여 조선식으로 변형시킨 계통의 양식적 특성은 이후 건원릉으로 전해져 조선 왕릉 조성의 선례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미술사적 의미가 있었다.

**Abstract**

## Jereung, A Royal Tomb of Sinui Wangtaehu

**Jang Kyunghee\***

Joseon rulers who were not direct-line royal descendants had tombs befitting a monarch built for their biological parents and housed their memorial tablets inside Jongmyo, the royal shrine normally reserved to past kings, in an attempt to legitimize their succession to the throne. Royal tumuli and memorial tablets of these dead royals were, in other words, symbols essential for sustaining a ruler's legitimacy in Joseon. King Taejong, for instance, was a monarch who seized the throne by force. He posthumously bestowed the title of Queen Dowager Sinui on his late mother, who was the first wife of King Taejo, and had a tomb built for her in a style and size identical to a queen's tomb (her graveyard is known as "Jereung"). Her memorial tablet was housed inside Jongmyo, placed next to that of King Taejo. Meanwhile, Taejong ordered the tomb of his step mother, Queen Consort Sindeok to be relocated and barred her memorial tablet from being introduced to Jongmyo.

It was, therefore, not by accident that Jereung, King Taejong's biological mother's tomb, became a classical example of an early-Joseon royal tumulus. King Taejong ordered the coffin and graveyard stone monuments and sculptures including stone steles

---

\* Professor of Hanseo University

to be made more elaborately and to look more grandiose than was the custom then. The many stone sculptures and monuments in Jereung, for this reason, are of particularly high historical significance.

Firstly, the buildings and stone structures in Jereung, although they were still very much imbued with Buddhist symbolism from previous eras, already exhibit Confucian characteristics. Yeongyeonsa, the Buddhist temple within the graveyard, was not only a place to pray for the soul of the dead royal lady, but also an edifice symbolizing King Taejong's filial devotion, whose role was to guard her tomb. The retaining stone slabs and the stone panels surrounding the tomb are carved with the image of a *vajra* grip and a *vajra* bell. The holding stone at the upper section bears the image of a dragon head to symbolize the prestige of the monarch. As for the stone lanterns, they are in a hexagonal shape, similar to the style of a stupa, instead of the classical square shape that was popular since the late Goryeo Dynasty; a detail suggesting how Joseon's royal house in its early years was still steeped in Buddhism, even as it declared Confucianism as the ruling philosophy of the new kingdom.

Secondly, the fact that the king personally paid visits to Jereung and that he ordered to have a memorial stele erected there was a gesture that cemented the monarchic authority of King Taejong. King Taejong visited Jereung at least once a year, thus reminding everyone in the kingdom of his filial piety toward his late mother. At each visit, he mobilized dozens of thousands of soldiers for a hunting trip and parade, to show off the prestige of the royal house. The large memorial stele, sculpted with brilliant motifs, had elegiac verses carved on its surface, praising the virtue of the late royal lady and legitimizing his succession to the throne. This gesture of King Taejong, aimed at permanently preserving the memory of his mother and imprinting the rightfulness of his reign in the minds of all, had repercussions in subsequent reigns in Joseon. King Yeongjo and Emperor Gojong, for instance, looked after this stele, and took care to see to necessary repairs and maintenance.

Thirdly, Jereung, insofar as it adds new stylistic elements to the basic tomb architecture inherited from the Goryeo Dynasty, became an example for other burial mounds of subsequent generations. Jeungneung, the tomb of Queen Consort Sindeok,

for example, was built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style of late Goryeo. Jereung, breaking out the mould of a classical Goryeo tomb, served as the prototype for many early Joseon royal tumuli. The memorial stele became the hallmark of a royal tomb of the early Joseon period, while the hexagonal stone lantern clearly distinguished Joseon burial mounds from their Goryeo counterparts. Sculptures on the retaining stone slabs, initially consisting mostly of Buddhist motifs, were later replaced gradually by Confucian motifs. Graveyard sculptures such as stone sheep, stone tigers and courtiers wearing square-shaped headdress and military officials in armor, which originate from the epoch when Goryeo rulers deferred to the Mongols following a peace treaty with the Yuan Dynasty, were continuously made into the early Joseon period. In Jereung, these stone sculptures had features that were less exaggerated than those of earlier sculptures of their type, and some of the surface motifs were simply dropped. These modifications, readapting the earlier tradition to the new society, became the norm for other tombs constructed later, such as Geonwonneung, the tomb of the first King Taejo.